



아름다운 것들

약속대로 눈 덮인 날 난로 앞에서 편지를 띄웁니다. 검은 숯으로 타들어가 재가 되어가는 나무토막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슴 어딘가에 약간의 통증을 수반한 묵직한 느낌이 전보다 잦으니 더 그런가 봅니다. 사람이 버텨야 할 삶의 무게라는 게 있고,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내어주어야 할 삶의 토막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다 소진되는 날 우린 맞겨진 임무를 완벽히 해냈다고 할 순 없을지라도 이 땅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내었노라 고백하게 되겠다고.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이 다 그렇습니다. 각자 짊어지는 짐의 경중을 어찌, 누가 판단할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 화로안에서 재가되도록 자신을 모조리 태워 주위에 온기를 나눠주는 나무토막 처럼 송고합니다. 심지어 내 생

명을 지켜내기 위한 일상도 위대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아버지는 옆에서 지켜보시며 감격하시고 응원하실 겁니다. 풀무불 같은 삶의 crucible 도가니에서 언젠가 소진되어 다 타버려 재가 될 여러분의 삶이 소중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봄.여~름, 갈.겨~울

한국 젊은이들이 4계절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짧은 봄 가을, 긴 여름 겨울을 표현하는 일종의 언어유희입니다. 이곳도 곳이 표현해보자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봄.여어~름, 갈.겨어~울!

아내는 이번 학기 시작하고 지난 학기보다 더 많이 센터 살림과 스케줄을 꽉 잡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역시 야무지고 반짝이는 아내의 손이 가니 저희의 부족한 capacity 안에서 규모있게 돌아갑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저에겐 상대적으로 수업 수를 덜어주는 센스도 발휘합니다. 덕분에 짧은 “갈”에 겨어~울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마을로 이사오고 첫 겨울이 영하 15도 정도였는데 집안이 추웠고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지내는 사택 단열재 보강공사, 발코니 창 공사, 그리고 전체 센터에 지붕공사를 감행했었습니다. 이젠 됐다고 두번 째 겨울을 느긋한 마음으로 맞이했는데, 웬걸 지난 겨울 영하 3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얇친 데덜친격으로 온 나라가 전력난으로 전력공급에 문제가 많은 해였죠. (지금은 전력난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첫 해와 둘째 해에 제너레이터 덕을 톡톡히 봤는데 어느날 옆집 아저씨가 어렵게 말을 꺼내십니다. “잠잠 자자.” 저는 잘 못 들어 몰랐는데 자려고 하면 빠~앙 하고 돌아가는 제너레이터 때문에 잠을 설치신다고요. 민폐를 줄이고저 올 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지난 해 사택 양 문으로 시베리아 찬기가 들어와 집안에서 두터운 겨울 파카를 입고도 오들오들 떨며 지냈던 기억에 일년내내 겨울을 춥지않게 날 방도와 거기에 따라오는 청구서를 고민했었습니다. 양 문앞에 현관을 만드는 일과, 집 안에 화목난로를 들여놓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현관 만드는 일은 최대한 비용 절감을 위해 구글을 찾아보면서 대부분 혼자 공사를 감당했답니다. ^^ 혼자하기 버거웠던 부분을 벅뚜르 아빠, 그리고 지붕 올릴 때는 잔볼롯 형제의 도움을 얻어 고마웠습니다. 물론 인건비는 지불했지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린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현지분들에게 의존적일 수 밖에 없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타이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관계없이. 만용을 부리지 말 것과, 겸손히 이들을 대해야겠다 다짐합니다.

밤을 맞아 자정이 넘도록 일을 하게되는 경우도 되풀이 하면서 약 두달 가까이 공사에 치중했더니 뿌듯한데... 겨울을 지날 때마다 저희가 이곳에 생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스키는 삶'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생존이 스키는'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무리없이 드니 말입니다.



소원

공부하는 도중에 6학년이 된 아이다이의 눈이 먼 곳을 응시할 때면 채워지고 싶어하는 빈 공간이 보이기도 하고 우수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전에 소개한 대로 어느 겨울 자동차와 함께 차거운 호수에 잠기는 아빠와 오빠를 뒤로하고 엄마 품에 안겨 살아나온 그 아이.

“애네 크리스찬이고 그들은 아이들을 납치해서 장기를 파는 사람들이야. 센터에 아이들 보내면 안 돼.” 우리에 대한 이런 소문이 돌 때 센터에서 공부 마치고 나가면서 "선생님은 안 그럴 거죠?" 라고 웃으며 아내 품에 안겼던 아이가 사춘기가 막 시작되려나봅니다.

“너희들 소원이 뭐야?” 수업중 “I wish for ...” 문장을 공부하다 물었습니다. A new iPhone, 여행, 음식 등이 나왔고 아이다이의 소원은 ‘랩탑’이었습니다. 저는 벌써 아이다이의 생일이 기다려집니다. 새 것은 아니지만 지난 번 도네이션으로 들어온 랩탑을 선물하려고요. 아이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저는 5개월을 어떻게 기다리나요.



이번 학기는 주로 저학년 위주로 반이 여럿 꾸려지네요. 지난 학기엔 아이들에게 학비가 아닌 contribution 명목으로 한달에 300솀 (약 \$3.50) 을 받았는데 이번엔 여러가지 고려끝에 아무것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아이들 한 명당 \$40을 지불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은혜로요.” 그게 답이지만 또 답이 아닙니다. 은혜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무 설명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혹시 어느날 갑자기 저희가 기억나시고 감동을 주신다면 그런 여러분의 정성어린 후원과 기도가 저희가 이곳에서 하는 사역을 가능케합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과 저희가 팀이되어 동역을 이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람을 만나 삶을 나누고 (그 여정가운데 그분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며) 또한, 이곳에서 생존을 위한 모든 삶의 영역까지 여러분의 동역으로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I wish for...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이들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삼남매 엄마 이야기 (47)

지난 해에는 센터에 공부하러 올 때 공짜로 하면 안된다. 조금받더라도 돈을 받아야한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300숨(\$3.5)을 받았습니다. 등록할 때 300숨을 내고나면 다음달부터 우리의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진짜 형편이 안되서 내기 힘들어 눈치보는 아이들, 옆에서 안 내는 친구를 보고 본인도 주저하는 아이들, 돈 낼 때쯤 안 오기 시작하는 아이들, 그 와중에 매달 리마인드 시켜야 하는 제모습이 그냥 불편했습니다.

이번 학년에는 과감히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무료로 수업하지만 시간을 정하고 성실하게 참석할 것을 약속 받으며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제 두달 남짓한 시간이지만, 다들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돈 얘기를 하지 않아도되니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마음이 편한대신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건가 싶긴 하지만, 아이들이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와서 반갑게 안아주고 수업하고 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됐지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걸 보니 올 해는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다른 생각이나 조언을 들으면서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과 저는 센터에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쓰려고 했던 큰 방이 메인 교실이 되었습니다. 갖다놓은 책걸상이 꽉차도록 앉아 있으면, 제 몸과 마음이 바빠지지만, 행복한 분주함입니다. 수학을 공부하겠다고 앉아서 구구단을 심각하게 외우고, 영어공부하러 와서 대소문자 구분하는 법을 열심히 익히는 수준이지만 어느 나라 공부벌레들이 부럽지않은 진지함이 있습니다.



주영이와 택함이는 겨울방학을 맞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회 다니면서 같이 지내다 온 애들인데도 한 침대에서, 같은 거실에서 이야기 나누는 걸 보면,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 보입니다. 다들 그렇게 지낸다 해도 각자 룸메이트들과 지내느라 신경썼던 부분들이 많았나봅니다. 동네 아이들 챙기느라 애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제대로 관심을 못 가졌던 미안함에 '오면 잘 해줘야지' 생각했는데, 뭐 이런 것마저 생각처럼 못 해주는 엄마인 것만 알아갑니다. 각자 주어진 시간, 공간에서 감사하며 즐겁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주세요

1. 만나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하도록
2. 좋은 성품과 실력을 겸비한 스태프 (영어 교사)를 만나도록
3. 재웅, 현순, 하람, 주영, 택함이에게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도록